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10월(목주기도 성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목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를 드릴 때
2. 목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요한 2,1~12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쉬는 교우 권면, 새 가족 찾아 하느님께
 - 본당 30주년의 내적인 준비로 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시다.(성경 읽기표 참고)*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2장 빛의 신비인 성체성사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16. 성체성사의 이 모든 차원은 하나의 측면 안에 수렴되는데,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실제적’ 현존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모든 전승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의 빵과 포도주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올바르게 설명하셨듯이, 이 현존이 “실제적”이라 불리는 것은,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실제적이 아니라는 듯이 배타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현존이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의 실재 안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현존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성체에 다가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있는 것임을 온전히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이야말로 성체성사의 다른 측면들 – 식사이며 파스카 신비의 기념이고 종말론적 선취인 성체성사 – 에 단순한 상징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성체성사는 현존의 신비이며, 이를 통하여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거행하고, 공경하고, 관상하며

17. 성체성사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거행되어야 하는 신비입니다. 거룩한 미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에 자리하여야 하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품위 있는 방식으로 정해진 규범에 따라, 회중이 참여하고 성직자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노래나 전례 음악의 ‘거룩한’ 특성에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거행되어야 합니다. 이 성체성사의 해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각 본당 공동체가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표징들’ 안에 현존하는 구원의 신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례주년의 흐름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교회 교부들이 즐겨 하던 ‘신비’ 교육에 전념해야 하며, 이 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은 전례 언어와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례의 표징에서 그것의 신비로 넘어가며 그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도움을 받습니다.

갈릴래아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신 첫 번째 표징사화는 요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종말시기’, ‘메시아의 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기름, 술, 곡식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성취시키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면 잔치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재에 나서십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술을 베풀어주시라고 즉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시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들여 표징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만일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 ① 잔칫집에 예수님 일행이 초대받아 가지지 않았다면
- ②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 ③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 ④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드님의 말씀 한마디에 포기하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 ⑤ 예수님이 당신의 처음 생각을 접으시고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 ⑥ 마지막으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또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신다. 잔치 도중에 술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난감한 일’ 또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말없이 순종하는 하인들만 있으면 이런 기적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나눔> 1.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2. 우리는 이웃에게 성모님처럼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3. 성모님처럼, 하인들처럼,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순명하고 있습니까?

힘들 때 3초만 웃자.

"행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노래 하니깐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하나 삶이 힘겹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뇌를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다.

많은 현인들이 말하길 "인생은 짧다"고 하는데,
그 짧은 삶을 인상을 구기며 살 필요가 있을까?
남들도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웃을 수 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웃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닐까.

어느 사찰의 스님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소리 내어 웃는 "웃음 치료"라는 걸 한다.
이 웃음 치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종이 울리면 일제히 웃는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스님들은 기분이 좋건 나쁘건 무조건 웃어야 한다.

웃음의 감정은 곧바로 주위로 전염되면서
스님들은 정말 좋아서 즐겁게 깔깔 웃는다.
이런 스님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자신만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한번 웃어보자.
그 웃음으로 인해 하루의 기분이 바뀔 것이다.
어깨 힘을 빼고,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하게 웃어보자.

얼굴을 활짝 피고 웃는 것을 반복해보자.
이것을 3초씩 반복하다 보면 아주 좋은 "뇌 운동"이 된다.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웃어보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웃으면서 계속 뇌에 집중을 하면 뇌와 가슴이 하나로 연결된다.
가슴에 있는 에너지의 샘이 열리면서
아주 순수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

이 에너지에는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이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 '세상을 보는 3초의 지혜' 中에서 >

